제2018-2호

한 국 사 회 학 회 소 식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Newsletter

〈차 례〉

Ⅰ.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인사말
Ⅱ. 한국사회학회 RC28대회 성료
Ⅲ. 한국사회학회 학술심포지엄
<전환기, 한국사회와 사회정책비전> 성료
Ⅳ. 한국사회학회, 지역사회학회,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
<지역사회의 혁신과 균형발전> 학술대회 공고
Ⅴ. 출판활동
Ⅵ. 회원동정
Ⅶ. 언론보도
Ⅷ. 행사보고 및 기타공지

발 행 처 :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발 행 일 : 2018년 7월 19일
전 화 : 02-722-8747
팩 스 : 02-722-8746
홈페이지 : http://www.ksa21.or.kr
이 메 일 : ksa8747@hanmail.net
발 행 인 : 신광영
편 집 인 : 최율
사무국장 : 신아름

Ⅰ.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인사말

한국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루한 장마 가운데서도 뙤약볕과 선선한 바람이 엇갈려 오고 가는 정체가 묘한 날씨입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에는 전혀 예견치 못했던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지도자의 갑작스런 판문점 만남은 국민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한국사회를 지배하여왔던 분단과 냉전의 권력이 마침내 허물어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은 미시 생활세계에서부터 국가조직에 이르기까지 묻혀 왔던 젠더 불평등과 인권 불감증을 공론화하고 문제시하는 가치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국 사회는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사회학이 풀어가야 할 과제도 근본적입니다. 무엇보다 사회 대전환의 의미를 파악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구상하는 사회학의 학문적, 실천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사회학회는 지역과 세계로 한국사회학의 지평을 확대하면서 대전환기 한국사회를 조망하고 미래 비전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3월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함께 '노동존중사회'의 미래 비전을 토론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노동권이 약화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제사회 영역 전반에 심화된 차별 및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방향과 과제를 깊이 논하였습니다.

4월에는 세월호 4주년 학술행사로서 <416 토론회: 세월호와 촛불,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416희생자 유가족 및 참여와 혁신 단체와 함께 416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였습니다.

5월에는 세계사회학회 <사회이동과 계층 분과> (RC28) 서울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광영 회장님을 포함하여 사회학자 여러분이 대회 조직을 준비하였고 250여 편의 훌륭한 논문이 발표되는 매우 성공적인 학술대회였습니다. 지구화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다양한 기제들과 맥락들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학자들이 국제적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약하고 있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6월에는 한겨레신문사와 공동으로 <전환기, 한국사회와 사회정책 비전> 학술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과 젠더 레짐의 변화, 교육 및 노동구조의 변화 등 한국 사회의 구조 변동을 다각적으로 논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미래 사회 모델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하반기도 전환기 한국사회에 대한 조망과 미래 사회 비전을 찾아가는 여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10월에는 <지역사회의 혁신과 균형발전>의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불균형 발전,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의 현실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8년 대단원을 맺는 정기 사회학대회가 12월 13-15일 열릴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사회학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사회전환의 특징들을 논하고 동아시아 사회학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학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신: 한국사회학회 홈페이지가 멋있게 새로워졌습니다. 논문투고, 회비납부, 국내외 회원 가입 모두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2018년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박 경 숙 배상

Ⅱ. 한국사회학회 RC28대회 성료

2018 RC28 국제 학술대회 성료 보고

국제사회학회 (ISA)의 사회계층과 사회이동 연구분과인 RC28의 국제 학술대회가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1971년부터 시작된 RC28 학술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Rethinking Social Inequality in the Globalizing World”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의 사회계층 및 불평등 연구자들의 뜨거운 학문적 토론의 장이 되었다.

<RC28 서울대회 진행결과 요약>

1. 참석인원	258명
2. 참가국가	24개국
3. 발표논문	201 편
4. 특별 강연 논문	4 편
5. 포스터 발표 논문	21 편
6. 총 세션	59 세션
7. Top 3 세션 (청중 수 기준)	1. Mobility: Multigenerational Approach 2. Mechanisms of Income Inequality 3. Education and Mobility

총 24개국에서 258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젠더, 소득불평등, 건강불평등, 고용과 노동시장, 국제이주, 사회이동, 교육, 가족과 결혼 등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59개의 세션에서 201편의 논문 구두 발표와 21편의 포스터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Gender, Family, and Population in East Asia”와 "Big data and inequality studies”라는 주제로 두 번의 특별강연이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모든 세션의 청중수를 기준으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세션은 <Mobility: Multigenerational Approach>였다. 다세대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불평등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는 분야로서 새로운 연구 관점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RC28 대회의 전통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Mechanisms of Income Inequality>와 <Education and Mobility>가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가자와 세션 수로 확인되는 대회의 규모도 눈에 띄지만, RC28 서울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대회들에 비해서 다양한 국가의 사회학자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세계화된 불평등의 메커니즘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와 함께 지역적으로 맥락화 된 불평등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학회장 곳곳에서 이

루어졌다. 특히 한국에서 열린 대회의 특성상 동아시아 지역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연구 발표가 많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25일 특별강연 “Gender, Family, and Population in East Asia”의 강연자 동경대 Swako Shirahas 교수(왼쪽 사진)와 서울대 박경숙 교수(오른쪽 사진)

본 대회 첫째 날인 25일에는 “Inequality and Health,” “Career and Earnings,” "Migration and Social Mobility,” "Precarious Transition to Adulthood”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21개의 패러렐 세션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날의 특별 강연은 현 한국사회학회 회장인 중앙대학교 신광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Gender, Family, and Population in East Asia”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박경숙 교수와 동경대학교의 Swako Shirahas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박경숙 교수는 한국 사회의 높은 노인 빈곤율로 표상되는 불안정한 노년층의 상황을 가족구성의 변화, 노동과 복지체제의 분열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Swako Shirahas 교수는 일본 사회의 계층화를 가구 구성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특히 미시적 수준에서 가족 구성원의 관계 변화가 거시적 수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주목하였다.



▲ 26일 특별강연 “Big data and inequality studies”의 강연자 Stanford 대학교 David B. Grusky 교수(왼쪽 사진)와 강연 참석자들의 모습(오른쪽 사진)

26일에도 “Youth and Education,” "Class, Gender and Family Dynamics,” "Minimum Wage, Job Insecurity and Segregation” 등의 주제로 19개의 패러렐 세션이 진행되었다. 26일에는 "Big data and inequality studies”의 주제 아래 Stanford 대학교의 David B. Grusky 교수와 프랑스 사회학회 회장이자 Ecole normale supérieure Paris-Saclay에서 가르치는 Frédéric Lebaron 교수의 특별강연이 Kansas 대학교 김창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Grusky 교수는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다’는 진술로 강연을 시작하면서 행정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기존의 서베이 자료로 포착하지 못했던 미국 사회의 낮은 사회이동성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Grusky 교수는 사회이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수계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을 소득수준별 그룹화를 통한 분리된 교육경쟁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두 번째 특별 강연자인 Lebaron 교수는 유럽이라는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Lebaron 교수는 초국가적 빅데이터 구축과 불평등 연구의 연계방식을 논의했는데, 그 가능성과 맹점에 대해 다양한 지역의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빅데이터의 구축이 가장 앞선 유럽과 자료기반이 전혀 다른 그 외 지역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 Poster session에서 연구자들과 참석자들 간의 교류 모습(왼쪽 사진)과 쉬는 시간 중 학술대회 로비의 모습(오른쪽 사진)

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27일에 “Family Work, and Health,” "Gender and Marriage Market,” "Education and Labor Market,” "Inequality, Mobility & Political Action”을 비롯하여 20개의 패러렐 세션이 진행되면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첫째 날의 환영만찬부터 시작해 총 3박 4일간 진행된 이번 RC28 서울대회는 정규세션과 특별강연을 비롯한 학술행사 뿐만 아니라 DMZ 투어, 캠퍼스 투어, 저녁만찬 등과 같은 다양한 부가 행사들을 마련해 참여자들이 학회장 바깥에서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일요일 마지막 세션까지도 많은 참가자들이 학회장을 떠나지 않을 만큼 열띤 토론과 첨예한 학문적 긴장이 학회 내내 지속되었던 RC28 서울대회는 국내외 많은 사회학자들로부터 RC 28 역사상 손에 꼽힐 만큼 그 구성과 내용이 충실한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율 (한국사회학회 총무이사,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Ⅲ. 한국사회학회 학술심포지엄
<전환기, 한국사회와 사회정책비전> 성료

<전환기, 한국사회와 사회정책비전> 성료 보고

학술 심포지엄 <전환기, 한국사회와 사회정책 비전>이 한국사회학회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2018년 6월 28일(목)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에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활동가, 시민 등 다양한 청중이 참여하여, 촛불혁명 이후 한국사회 변화의 향방을 이해하려는 지적 관심과 새로운 사회정책에 대한 열망이 강렬하고 대중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광영 한국사회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심포지엄은 기조발제, 그리고 3부의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경숙 사회학회 부회장은 인구라는 열쇳말을 통해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인 주체성의 변동을 조망했다. 박 부회장은 100여 년에 이르는 시간 여행을 통해 식민지 시기 인구와 조선인 주체의 특징을 도출하고, 인구의 구조 변동을 토대로 북한 사회주의의 성쇠를 분석한 다음, 현재 남한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인구학적 현상—저출생과 노령화, 젊은 세대의 불안, 지역 소멸의 위기, 이주자의 증가—을 고찰했다. 박 부회장은 이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가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한국인 주체 탄생의 조건이자 지표라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무리 지었다.



▲ 신광영 한국사회학회 회장의 개회사(왼쪽 사진)와 박경숙 부회장의 기조발제(오른쪽 사진)

강이수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제 1부는 가족과 젠더 질서의 측면에서 바로 그러한 낡은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예고했다. 먼저 이재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명예교수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가족의 인구학적 변화를 개괄한 다음, 19세기 서구에서 유래한 핵가족 이념형과 성역할 이분법이 산업화 시기

한국사회에서 발휘한 규범적 영향력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 가족이 그와 같은 근대 젠더 이분법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탈표준화와 유연성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00년대 여성정책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정작 성평등과 성차별이 무엇인지 제대로 토론되거나 정의되지 못한 역설을 지적하고, 정책 외부에서 격렬하게 전개된 백래쉬와 여성혐오 현상의 원인을 신자유주의의 불안정성으로 진단했다. 신 교수는 그와 같은 백래쉬와 여성혐오에 맞서기 시작한 여성들에게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여성 주체의 탄생을 전망하는 한편, 과연 그에 걸맞은 남성 주체는 형성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정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1960년대 이후 서구의 '2차 인구변화'로 환원하기 어려운 현재 한국 가족의 독특한 요소들(극히 낮은 합계출산율과 혼외출산율)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성애 중심의 젠더 이분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사이의 긴장과 연대의 가능성을 질문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의 성불평등이 찰스 틸리(C. Tilly)의 '장기 지속 불평등' 사례에 해당한다고 진단하고, 2000년대 여성정책의 핵심 기조였던 성주류화가 왜 이와 같은 장기 지속 불평등을 해체하지 못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효래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제 2부에서는 교육, 노동, 계급구조의 변화와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승자독식을 정당화하는 세계화와 평범한 인재의 종언이 예견되는 4차 산업혁명 상황에서 한국의 교육이 시대 적합성을 크게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성적에 기초한 서열화, 과도한 학습 부담과 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교육철학과 비전의 정립, 다원적 능력 계발과 다양한 진로 제공, 수준별 맞춤형 수업,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 강이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 1부 토론(왼쪽 사진)과 제 2부에서의 김경근 교수의 발표(오른쪽 사진)

다음으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겸임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경험에 입각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불평등 해소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박 연구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노사정이라는 경제사회주체들 간의 대화가 궁극적으로 ‘포용적 노동체제’, 곧 신자유주의에 맞서 불평등을 시정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성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김두환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김경근 교수의 문제 진단과 대안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명했다. 반면 박명준 연구위원에 대한 토론을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임시 회의체로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과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부소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예산과 인력이 과소한 데다 여성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성평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스웨덴 모델을 따라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합의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광영 회장이 좌장을 맡은 제 3부에서는 복지정책의 역사와 현재를 검토하고 미래를 전망했다. 먼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작은 복지국가’가 형성된 원인으로 수요자 측면에서 기업복지와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공급자 측면에서는 정치가들이 비인기 정책인 증세를 추진하기 어려운 대통령제와 소선구제를 꼽았다. 양 교수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공공복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공공재원화하는 한편,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노동력(예컨대, 고학력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일가족양립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 복지를 확장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원인을 ‘거래와 타협에 의한 민주화’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자본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노동 배제적 자동화’로 지목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윤 교수는 재벌구조 해체와 노동의 숙련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중부담 중복지 체제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다수의 토론자가 참석한 만큼 열띤 논쟁이 전개되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재정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소비세나 부가가치세, 연금보험료보다는 우선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형평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에서 노동 배제적 자동화가 유례없이 극심하게 추진되었다는 윤 교수의 분석에는 동의하면서도, 향후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기술혁신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아

울러 장 부원장은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한 시장 임금 향상이 사회 임금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의제임을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 부담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한편, 전통적인 계급 균열보다 성과 인종의 균열이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재진 교수가 제시한 퇴직연금 공공재원화가 자칫 이중노동시장을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했고, 윤홍식 교수에 대해서는 재벌 해체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은 서른 번째 쌍용차 해고자의 죽음을 화두로 삼아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복지국가 재편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장은 현재 한국 복지정책에서 증세와 이중노동시장 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 어려운 현안들이 산재해있으나, 동시에 한국 현대사가 입증하듯 이러한 상황이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타개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 제 3부에서 윤홍식 교수의 발표(왼쪽 사진)와 제 3부 토론 모습(오른쪽 사진)

이처럼 이번 심포지엄은 인구, 젠더와 가족, 교육과 노동, 그리고 복지국가라는 한국사회의 핵심 의제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사회학이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밖에 없었던 프랑스 혁명 이후 현대성을 설명하기 위해 태동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한국사회의 전환을 고민했던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적) 사회(과)학이 새롭게 합성, 배양되는 실험실이었다고 하겠다.

박정미 (충북대 사회학과 조교수)

Ⅳ. 한국사회학회, 지역사회학회,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 <지역사회의 혁신과 균형발전> 학술대회 공고

한국사회학회는 지역사회학회,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과 함께 '지역사회의 혁신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지역사회의 혁신과 균형발전"

▣ 일시 : 2018년 10월 19일(금) 오후 1시 ~ 6시

▣ 장소 : 충남대학교 (대전)

▣ 주최 : 한국사회학회, 지역사회학회,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

▣ 주관 : 한국사회학회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역사회 내부적으로 경제·정치·문화·복지·교육영역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 격차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들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사회학계 3개 단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학술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사회학자와 전문가들이 지역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각 지역의 특성과 변화, 지역혁신 정책 및 공동체 활성화 사례, 지역의 현실에 대한 비교 등 '지역' 차원의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공동학술행사는 학회 회원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려는 회원은 8월 17일(금)까지 첨부된 파일(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한국사회학회(ksa8747@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학회, 지역사회학회,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

Ⅴ. 출판활동

<한국사회학> 2018년 제52집 2호 발간

<한국사회학> 2018년 제52집 2호에는 연구논문 5편이 실렸습니다.
게재된 논문의 제목과 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논문>

- 한국 농촌 독거노령자의 사회관계와 신체 건강 사이의 연관성 연구: 닫힌 삼자관계를 중심으로 / 김민성 · 박다솔 · 유지형 · 염유식
- 미국 자본회계 체제의 성립과 변동 / 구본우
- 베버, 뒤르케임, 슈츠, 그리고 2016~2017년: 촛불혁명을 보는 사회학의 시각 / 김광기
-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국민태도 결정요인 / 구정우·정진원 · 손누리
- 유아유심 개인주의: 마음사회학을 위하여 / 김성국

Ⅵ. 회원동정

Ⅰ 부고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은미 교수 시부상 : 2018년 4월 21일 별세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 빙모상 : 2018년 5월 29일 별세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장용석 교수 빙모상 : 2018년 7월 2일 별세

Ⅱ 신입회원 (가나다순 - 총 9명)

○ 김은지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졸업
○ 김주환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 박이분 -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 변지영 - 차의과대학교 의학과 임상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 신영민 -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
○ 연혜원 - 한국여성학회 대외협력국 간사
○ 이수진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졸업
○ 이철희 - ㈜포스코
○ 최정배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졸업

Ⅲ 활동

○ 서울대 사회학과 임현진 명예교수(제 48대 한국사회학회장 역임)
'제 27회 수당상' 수상 회원 소식

제 48대 한국사회학회장을 역임한 서울대 사회학과 임현진 명예교수가 삼양그룹 수당재단에서 수여하는 '제 27회 수당상' 인문사회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부산대 사회학과 김영 교수 외국인 최초 일본사회정책학회 학술상 수상**

부산대 사회학과 김영 교수(부산대 여성연구소 소장, 학술지 <여성학연구> 편집위원장) '일본사회정책학회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돼 최근 일본 사이타마 대학에서 열린 사회정책학회 회원총회에서 학술상을 받았다. 이 학회는 적격자가 있을 때만 학술상을 시상하며, 수상자가 나온 것은 2013년 이후 5년 만이다. 특히 일본의 대학에 재직하는 연구자들을 포함해 외국인으로서 첫 수상이다.

김 교수는 2017년 출간한 '주부파트타이머의 처우 격차는 왜 재생산되는가' 연구 저서로 수상자에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부산대 김영 교수의 저작에 대해 "일본의 파트타임 노동시장에서 직무와 처우의 불균형이 왜 확대 재생산 되는가라는 일관된 문제의식을 갖고 기업·노동조합·주부파트타이머라는 세 행위자 모두를 조사한 대단히 포괄적인 접근이다. 선행연구 대부분이 제도 분석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해 세 행위자의 행위를 분석해 파트타임 노동시장에서 직무와 처우의 불균형이 확대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명백히 한 것이 최대의 학문적 공헌"이라고 평가했다.

Ⅲ 회원 출판소식

○ **윤상우 지음.**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18년 2월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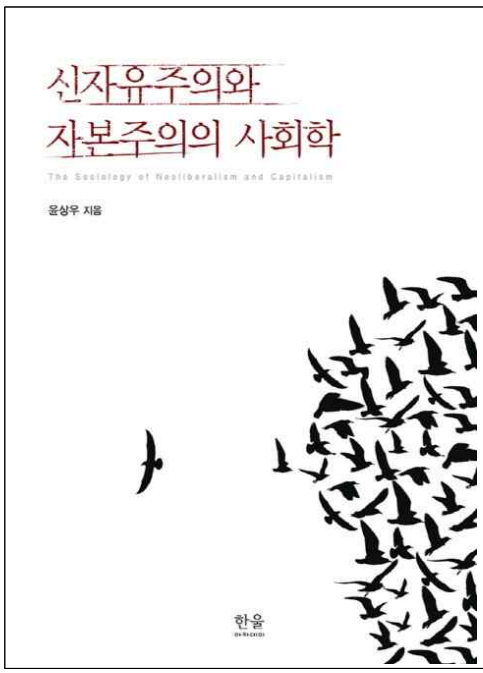
오래전부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온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은 자본주의 위기설과 사회민주주의의 도입을 꾸준하게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당장 이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사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같은 현실자본주의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 책은 '자본주의의 위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지속성'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변동하는 복잡다단한 역사적 과정에서 출현할 대안적 경제체제를 전망하는 동시에 이 체제의 변동 과정을 계속해서 분석함으로써 이 체제의 종말까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의 바탕에서 이 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신자유주의 경제 교리가 해당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특수성, 사회행위자들 사이의 역학 관계와 상호작

용 방식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는 '제도적 다양성' 관점으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분석한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동 과정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기점으로 대만, 브라질, 중국,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신자유주의로 재편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그 안에서 제도적 다양성 문제를 규명하는 이 책은 발전사회학과 사회변동론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회학자의 현대자본주의의 대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목 차>

제1부 자본주의 변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장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비교자본주의론의 전망
제2장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재구조화
제3장 현대자본주의의 금융화 경향성과 쟁점
제4장 베이징 컨센서스 비판
- 라모와 아리기의 논의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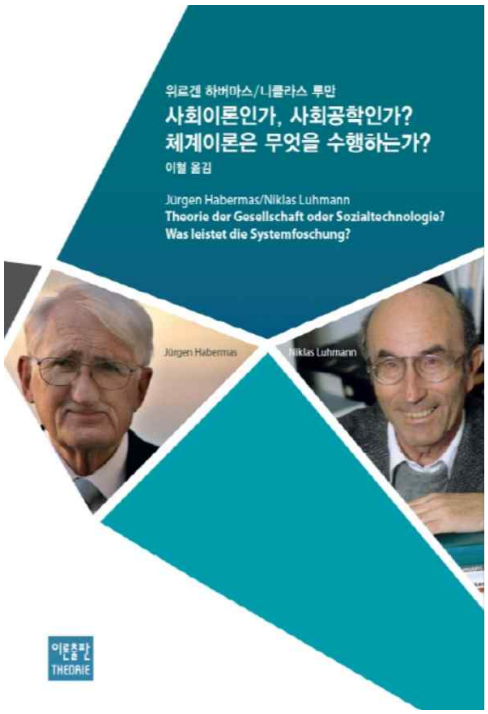
제2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 발전
제5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제6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만 발전국가
: 변화와 연속성
제7장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내부화 과정
: 한국과 브라질 비교
제8장 중국의 자본주의와 탈종속적 발전
제9장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미래

○ 위르겐 하버마스, 니클라스 루만 지음, 이철 옮김.
《사회이론인가, 사회공학인가? 체계이론은 무엇을 수행하는가?》
이론출판, 2018년 5월 31일

1960년대 실증주의 논쟁 이후 가장 비중 있는 논쟁을 다루고 있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비판이론으로 20세기 후반의 지성사를 휩쓸었으며, 니클라스 루만은 2000년대 들어서서 독일어권에서 초학제적으로 관철된 사회학적 체계이론을 창안한 석학이다.

20세기와 21세기를 분할한다고도 할 수 있을 비판이론과 체계이론의 양 대표자는 1971년 Suhrkamp 출판사에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쟁집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처음 3년 동안 6천여 권, 그 후 20여 년 동안 5만여 권이 팔려나갔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는 하버마스가 특이하게도 재인쇄와 번역을 불허하였다. (그래서 이 책의 원본은 현재 독일에서 수집가들이 노리는 아이템이며, 번역본으로는 세계적으로 책 출간 직후에 발 빠르게 번역한 일본어 판본밖에 없다).



<목 차>

니클라스 루만
전체 사회 분석 형식으로서의 현대 체계이론
사회학의 기본 개념으로서의 의미

위르겐 하버마스
소통 능력 이론을 위한 준비 고찰
Ⅰ. 소통 능력과 언어 능력의 한계에 대하여
Ⅱ. 화용론적 일반 개념-화행의 체계화 제안
Ⅲ. 소통 행위와 담론-일상적 소통의 두 가지 형식
Ⅳ. 진리의 합의이론, 진술의 진리,
발언들의 진실성, 행위의 올바름
Ⅴ. 이상적 발화상황의 규정들

사회이론인가 사회공학인가?-니클라스 루만과의 논쟁
서론
Ⅰ. 사회의 체계이론인가? 사회의 사이버네틱스인가?
Ⅱ. 의미의 의미: '의미'는 언어 독립 범주인가?
Ⅲ. 경험세계의 구성과 언어적 소통
Ⅳ. 체계이론적 진리 개념
-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잘못된 통일
Ⅴ. 체계이론적 이데올로기 개념과 새로운 형식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체계이론
Ⅵ. 사회의 진화 이론에 대한 루만의 기여
역사적 유물론의 기본 전제들에 관한 부설

니클라스 루만
체계이론적 논증 - 위르겐 하버마스에 대한 반박
Ⅰ. 복잡성 문제
Ⅱ. 체계로서의 토론
Ⅲ. 소통매체로서의 진리
Ⅳ. 사회의 진화
Ⅴ. 체계이론의 보편성과 근거 제시 가능성
Ⅵ. 비판이냐 옹호냐-또는 사회이론의 불확실성이냐

이철
사회학적 체계이론의 인식론과 관찰 프레임

Ⅳ 박사학위 논문소개

○ 이수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자활사업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년 2월 졸업

자활사업은 빈곤 탈출을 위해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작된 빈민운동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 영역으로 포섭되어 시장에서 빈민들이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 논문은 빈민운동이 국가 영역으로 제도화된 것이 주체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제도가 설계되는 과정과 정책 실행 단계에서 어떤 역관계가 작동하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또한 변화된 역학관계에 따라 제도의 목표와 기능은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분석했다.

자활사업의 형성기(1990~2000)에는 민간 영역에서 시작된 생산공동체운동이 정부의 자활시범사업시기를 거쳐 국가의 공식 제도로 시행되는 과정을 사회운동의 제도화 논의를 통해 자원의 안정화, 조직 목적의 온건화, 내부지향적 행위양식의 관례화 과정으로 분석했다. 성장기(2001~2007)에는 자활사업을 통한 사회적 자활의 목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경제적 자활을 중시하는 것이 겹쳐지면서 제도가 변동해 왔다. 전환기(2008~2016)에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변동했다. 그리고 제도의 효과성을 시장 진출로만 평가하려 한 보수정부의 자활정책은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었다.

이와 함께 각 시기별 공공성의 구성 양식을 사회의 전면적인 시장화 경향과 연계해 분석했다. 형성기에는 사회운동형 공공성의 성격이 강했다. 이후 성장기에는 노동연계복지가 강화되고, 호혜성과 재분배의 원칙보다 노동을 도구로 교환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장연계형 공공성이 부각되었다. 전환기에는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한 위계관계가 공고화되면서 사회적 자활이 경시되고 경제적 자활을 우선하는 시장친화형 공공성이 강화되었다.

Ⅶ. 언론보도

Ⅰ 한국사회학회 416토론회 공동개최

한겨레

‘시민’은 왜 세월호를 잊지 않는가

등록 :2018-04-19 18:24

‘세월호와 촛불,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 토론회

유가족의 멈추지 않는 진상 규명 요구가
‘구경꾼’에 그쳤던 시민들 참여 이끌어내
‘부정의’ 해결하려는 자발적 욕구 더해지고
추모의 일상화 진행되며 시민들 삶도 ‘재건’



‘세월호와 촛불,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 토론회에 참가한 김민환 한신대 교수(왼쪽부터),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유해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정원옥 박사(문화연구학).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제공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 요구 여론을 확산시키고 유가족들의 뒤를 받쳐준 ‘배후’는 보통의 시민들이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도 ‘운동권’ 출신도 아닌 수많은 이들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노란 리본을 나눠준 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유해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한국사회학회 등이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전남 목포 목포대에서 주최한 ‘세월호와 촛불,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 토론회의 발제를 통해서다.

▲자료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1308.html)

Ⅱ 한국사회학회 ISA RC28 서울대회 개최

경향신문

세계 연구자들, 여기의 불평등을 논하고 그 너머의 희망을 찾는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 'RC28 대회' 국내에선 처음으로 25 ~ 27일 열려



세계 불평등 연구자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세계 24개국 연구자 225명 참여
젠더·소득·건강 불평등 등
7개의 영역 폭넓게 아울러
양극화 비판적으로 통찰

한국사회학회는 오는 25~27일 국제사회학회(ISA) 사회계층과 사회이동 연구분과(RC28-Research Committee o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서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진행되는 RC28 서울대회에는 세계 24개국 225명의 연구자가 참석한다. 날로 증가하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비판적으로 통찰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22130005&code=960201)

Ⅲ 한국사회학회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학술 심포지엄 〈전환기, 한국 사회와 사회정책 비전〉공동개최

한겨레

‘삶의 질’ 초점 맞춘 ‘중장기 국가 비전’ 속속 나온다

등록 :2018-07-04 18:20 수정 :2018-07-04 19:21

학계와 정부기구 두루
통합적 사회정책 비전 마련 분주
정책기획위, 국가 미래비전 수립
사회정책 중장기 비전도 작업중
사회보장위, 사회보장기본계획 바탕 될
‘사회보장 2040’ 준비 박차
복지부·기재부도 각각
경제·사회 패러다임 모색



한국사회학회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학술 심포지엄 ‘전환기, 한국 사회와 사회정책 비전’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렸다. 토론을 하고 있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왼쪽부터),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신광영 한국사회학회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불평등이 나날이 심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한국 사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 것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산업·경제 구조의 변화는 이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 ‘암울한 미래’의 전제가 ‘이대로 가다간’이라는 점이다.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펼쳐온 경제성장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통합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실천한다면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의식이 확산하면서 학계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에서도 복지국가로 나아갈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 비전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자료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51922.html)

Ⅷ. 행사보고 및 기타공지

Ⅰ 학술행사 보고

XIX ISA WORLD CONGRESS OF SOCIOLOGY

- 주최: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 일시: 2018년 7월 15일- 7월 21일
- 장소: Toronto, Canada: Metro Toronto Convention Center

2018년 7월 15-21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국제사회학회의 XIX World Congress of Sociology에 역대 최대 규모인 64명이 참가하였다. 동아시아의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가운데, 한국 참가자들의 증가는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져, 세계 사회학계 내에서 한국 사회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참가자들은 대부분 한국사회학회 회원들로 명예교수(한상진, 서울대, 임현진 서울대, 심영희 한양대, 전성우 한양대)부터 현직 교수(서찬석, 신광영, 신진욱, 이나영, 장경섭, 장원호, 조주현 등)와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해서 더욱 두드러졌다. 앞으로 한국의 신진 사회학자들과 학문 후속세대의 활동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2018년 지역사회학회, 해양사회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

- 주최: 지역사회학회
- 주관: 지역사회학회,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 일시: 2018년 4월 27일(금) 13시
- 장소: 경상대학교 통영캠퍼스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2018 비판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 주최: 비판사회학회
- 주관: 비판사회학회,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일시: 2018년 4월 28일(토) 13시
- 장소: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관

한국농촌사회학회 2018년도 정기학술대회<기후변화와 초고령화: 농업 농촌에서 길을 찾다>

- 주최: 한국농촌사회학회,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SSK연구센터
- 주관: 한국농촌사회학회, 대한지리학회
- 일시: 2018년 5월 18일(금) 10시 - 18시
- 장소: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산학협동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콜로키움 <엄벌 없는 엄벌주의: 우리는 왜 성폭력 처벌을 이야기하는가?>

- 주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복합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사업팀」
- 일시: 2018년 5월 18일(금) 19시
- 장소: 중앙대학교 R&D센터

2018년 한국문화사회학회 봄 학술대회<혐오와 갈등의 문화사회학(Ⅰ): 현황과 진단>

- 주최: 한국문화사회학회
- 주관: 한국문화사회학회,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 일시: 2018년 5월 26일(토) 10시 30분 - 18시
- 장소: 아주대학교 종합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콜로키움 신임교수 특별강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인가? 종교적 믿음과 활동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주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복합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사업팀」
- 일시: 2018년 6월 1일(금) 18시
-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

2018년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인구감소와 지역사회의 도전과 과제>

- 주최: 한국인구학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일시: 2018년 6월 8일(금) 9시 30분 - 18시 30분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8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해외학자 초청 강연 <Elusive Belonging: Marriage Immigrants and Multiculturalism in Rural South Korea>

- 주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복합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사업팀」
- 일시: 2018년 6월 14일(목) 16-18시
-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

2018년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성폭력을 말하다, 민주주의에 도전하다>

- 주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 주관: 한국여성학회,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 일시: 2018년 6월 16일(토) 9시 40분 - 18시
- 장소: 연세대학교 외솔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스탠포드대 피시킨 교수 초청 공론조사 토론회>

- 주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일시: 2018년 6월 19일(화) 14시 - 18시
- 장소: 서울대학교 행정관

2018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해외학자 초청 강연 <From Miracle to Mirage: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Korean Middle Class, 1960-2015>

- 주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복합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사업팀」
- 일시: 2018년 6월 19일(화) 15-17시
-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

Ⅱ 학술행사 안내

토론토대학교 <Rethinking Class and Labour through the Works of Hagen Koo>

- 주최: 토론토대학교
- 일시: 2018년 7월 16일(월) 9시 30분 - 14시30분
- 장소: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Centre For The Study of Korea Symposium

2018년 한국이론사회학회 연례학술대회

- 주제: 인간-사물 관계와 사회이론의 미래
- 일시: 2018년 8월 23일(목) - 24일(금)
- 장소: 국민대학교 북악관 616호
- 기조강연(23일 13시 30분): Nick Fox (Sheffield University, UK), "Sociology and the New Materialism" (Sage Publications, 2017)의 저자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 제3회 동아시아 DAAD센터 컨퍼런스 <새로운 세계의 도전, 새로운 세대의 상상력: 1968-2018>

- 주최: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ZeDes)
- 일시: 2018년 10월 4일(목) - 8일(월)
- 장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워크숍 <Who Are "Koreans": Korean Identity Viewed through Different Lenses>

- 주최: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일시: 2018년 12월 12일(수) - 14일(금)
- 장소: 하와이대학교 Center for Korean Studies

Ⅲ 2020년 한국사회학회 회장 후보 등록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학회입니다.
「한국사회학회 회칙」과 「회장선출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2020년(차차기) 한국사회학회 회장 후보 등록일정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20년 한국사회학회 회장선거에 출마하실 후보자의 등록기간은 회장선거 6개월 전(2018년 6월 14일 목요일) 부터 3개월 전(2018년 9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2. 후보자께서는 2020년 회장 후보 등록 양식에 한국사회학회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정회원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사회학회 사무국(Tel: 02-722-8747. E-mail: ksa8747@hanmail.net) 또는 조은주 총무(Tel: 02-300-0879, E-mail: echo1026@gmail.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뉴스레터 공지 이용 안내◈

(사)한국사회학회 뉴스레터는 매 1월, 4월, 7월, 10월의 15일자로 발행하며 원고 마감일은 전월 말일까지입니다.

뉴스레터에 회원 여러분의 최근 활동(저서출간, 보직, 안식년, 출장 등)과 변동사항(주소, 전화번호, 직위 등)을 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술대회, 학과 활동 등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사)한국사회학회 사무실 (Tel: 02-722-8747, Fax: 02-722-8746, E-mail: ksa8747@hanmail.net)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